

# 정홍원 “세월호 추모비·국민안전기념관 건립”

### 총리 유임 후 첫 행보로 진도 찾아 유가족 격려

### 정의화 국회의장도 진도 방문 실종자 가족 위로

정홍원 국무총리는 29일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 추모비와 추모공원을 세우고 국민안전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휴일인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종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주재한 긴급간부회의에서 “세월호 사고수습 과정에서 경험하고 느낀 점을 토대로 ‘국가개조’라는 국가적·시대적 과제를 기필코 달성하고야 말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무엇보다 저는 진도 앞바다에 남아있는 실종자 11명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도 현장의 실종자 가족 분들과 총리실 간 핫라인을 만들어 제가 진도에 없는 시간에도 마음을 항상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가족들의 고통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4월 16일을 대한민국 국민이 영원히 잊지 않도록 이날을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희생자 추모비와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동시에 팽목항을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각종 추모·기원 행사와 안전체험 등을 통해 전방위로 안전의식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안전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여 희생된 분들이 대한민국을 변혁시켰다는 역사적 의미가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것들을 충실히 답아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로 드러난 우리 사회에 만연된 적폐 해소를 위한 ‘국가개조’ 과업은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다”며 “세월호의 희생이 대한민국 대변

하고 승화되도록 정부는 안전혁신, 공직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등에 모든 역량을 쏟아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앞서 지난 27일 전남 진도체육관을 찾는데 이어 28일 오전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의 정부공식합동분향소를 찾았다.

특히 정 총리는 유임 이틀날인 27일 세월호 참사 현장인 진도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두 달 넘도록 시신을 찾지

못하고 애타게 찾는 실종자 가족들과 만나 ‘눈물의 위로’를 전한데 이어 이날까지 이를 연속 ‘위로 행보’를 이어갔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도 28일 전남 진도체육관을 찾아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을 위로했다.

가족들은 정 의장에게 “실종자 수색에 대한 전문가(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희생자들이 잊히지 않도록 해달라”면서 “세월호 사고 75일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불만을 표지했다고 국회의장실 측이 전했다.

가족들은 또한 “앞으로 세월호 국정특위가 여야 간 경쟁이 아닌 실질적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가 (특위) 원활히 제출돼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추모공원 등을 조성해 대한민국 국민이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실종자 수색 참여로 진도 어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가족들의 요청에도 정 의장은 “예비비로 집행할 것은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무릎 꿇고 위로 정홍원 총리가 유임 후 첫 일정으로 지난 27일 오후 진도실내체육관을 찾아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무릎을 꿇은 채 애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7·30 재보선 브리핑

### 천정배, 광산을 출마선언... “호남정치 개혁 첫 걸음”

천정배 전 법무장관은 29일 “호남정치 개혁의 첫 걸음,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한 한 걸음, 호남정치의 르네상스가 광주 광산에서 시작되겠다”며 7·30 광주 광산 보궐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다.

천 전 장관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바로잡는 정치, 새로운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다시 시작하겠다”며 “호남의 자존심을 지키고, 광산구민과 광주시민 나아가 호남민들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근우 “새정치연합 공천, 광주 자존심 지켜야”

7·30 광주 광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이근우 예비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7·30 재·보궐선거에서 광산은 광주의 자존심을 지키는 공천을 통해 새정치연합의 승리를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광산을 출마를 선언했거나 준비 중인 다른 후보들 모두

정치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지만, 그동안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 광주와는 인연이 없고 서울과 중앙 정치무대에서 줄곧 활동해 오신 분들이 많다”면서 타 후보들의 이른바 ‘원정 출마’를 비난했다.



### 이개호 “담양·함평·영광·장성 희망프로젝트 가동”

7·30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이개호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담양과 함평, 영광, 장성의 현안·숙원사업을 파악해 지역별 맞춤형 공약인 ‘담·함·영·장 희망 프로젝트’를 다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4개 군(郡) 발전을 위

해 ▲농축수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생산지 복지정책 강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5대 과제로 꼽았다.



### 신정훈 “나주·화순 지방선거 당선자 등 지지선언”

7·30 나주·화순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 나주·화순 6·4지방선거 당선자와 새정치민주연합 당직자, 당원들이 29일 신정훈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강인규 나주시장 당선자와 나주·화순 지방의원 당선자 9명, 전·현직 지방의원, 당직자 및 당원 등 343명은 이날 지지선언문을 통해 “새로운 정치, 민생 정치, 시민우선 정치,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신정훈 후보를 지지한다”면서 “새정치와 정권교체의 시작을 나주와 화순에서 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신정훈은 가장 치열하게 새정치를 실천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다”고 강조했다.



### ‘순환규계’ 이남재 광산을 불출마 선언

새정치민주연합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경선을 준비했던 이남재 전 순환규 대표 비서실 부실장이 29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부실장은 자료를 내고 “당내 민주주의와 개혁, 호남정치의 혁신, 정권교체의 초석이 되고자 하는 총정으로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검토했으나 지난 6·4 지방선거의 패배였던 계파정치의 연장 선상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새정치연합의 개혁과 호남정치의 혁신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저의 출마가 또 다른 당내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고 불출마 배경을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세월호 국정조사 진도서 기관보고 할까

### 여야 특위 간사 오늘 최종 결론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심재철 위원장이 지난 27일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진도에서 열도록 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기관보고가 진도에서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심 위원장은 권성동·윤재옥·이재영 의원 등 5명의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진도 사고 현장을 찾아가 실종자 가족들에게 여야 간사의 합의를 조건으로 “여야 간사들이 협의를 빨리 하도록 하겠

다”며 이같이 밝힌 바 있다.

당시 여당 의원들은 실종자 가족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기관보고를 진도 현장에서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실종자 가족들은 기관보고가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될 경우 현장에서 수색을 지원하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석균 해경 청장 등이 장시간 자리를 비워 수색에 자질이 벗어날 것을 우려, 여야 국정특위 위원들에게 기관보고 장소를 진도 현장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장시간 실종자 가족의 항의를 들은 심재

철 위원장은 고심 끝에 “진도에서 가족들이 요구한 대로 기관보고를 받겠다”고 답했다. 다만, “여야 간 간사협의를 해서 진도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며 “형식적으로 여야 합의절차가 있어야 하고의 결찰차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재차 기관보고가 실종자 수색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들은 심재철 위원장은 “여기서 하겠다”고 다시 약속했다.

이와 관련, 세월호 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실종자 가족들은 기관보고를 진도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요구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합의를 못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아직 새누리당 쪽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서 “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으니 일단 연락이 오면 여야 간사들이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하지만, 여당 측에서도 진도 현장 기관보고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고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29일 “일단 물밑에서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30일 국회에서 진행될 기관보고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개발사업 제안 공모 공고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지의 존치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단지 개발·운영에 대한 민간 투자자들의 사업제안을 공모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6월 30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이사장

-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개발사업
  - 나. 사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일대
  - 다. 사업면적 : 박람회장내 매각대상 부지·건물·시설물
    - 부지 18필지 251,001㎡ / 건물 8동 1,410,655.59㎡ / 시설물 7식
  - 라. 사업내용 : 박람회장 존치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단지 개발 및 관리·운영
  - 마. 매각원칙 : 부지·시설 일괄 또는 분할매각
    - 사업제안자가 일괄 매입이 곤란할 경우, 단지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도입시설의 특성에 따른 구역별 매각 가능
    - 비의와 주택관련 구분 매각 불가, 폐기지 매각 원칙
    - 분할상환(5년)도 예외적 허용
  - 바. 사업기간 : 2021년까지
- 사업제안조건 및 제안시 유의사항**
  - 가. 사업제안자는 「제안요청서」 제14조(사업제안자격 및 방법)상의 요건을 구비한 자여야 함.
  - 나.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의 사업부지내에 있는 한국관, 엑스포홀은 존치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 시설의 이용·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제안하여야 함.
  - 다. 입찰보증금, 입찰서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 사업계획서 제출 및 평가**
  - 가. 사업계획서 작성은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 나. 사업계획서 제출
    - (1) 제출기간 : 6월 15일(월) 18:00까지
    - (2) 제출장소 :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경영기획부(국제관 C동 2층)
    -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하여야 함.
  - 다. 필의서 접수기한 : 2014년 7월 21일(월)
  - 라. 필의서 마감기한 : 2014년 7월 25일(금)
  - 마. 사업계획서 평가 및 선정방법
    - (1) 자격심사 : 제출서류, 출자자의 자격 등을 평가
    - (2) 내용평가 : 박람회 사후활용 목적 및 필요성, 공공성과 창의성, 국제해양레저관광단지 개발 및 관리·운영계획, 사업성 분석 등으로 구분하여 총 1,000점 만점으로 함.
    - (3) 사업제안자는 평가일 사업계획서 발표 준비\*를 하여야 함(발표시간 30분, 질의응답 20분)
    - \* 발표자료는 MS-Powerpoint로 작성하고, 당일 배포자료 10부 제한
  - (4) 사업지후보지 선정통보 :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 기타사항**
  - 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세부 지침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홈페이지(http://www.exp2012.kr)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경영기획부(☎061-659-2022)에 문의하시기 바람.
  - 나.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필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필의가 가능하고, 필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7월 25일에 일괄 회신함.
  - 다. 투자설명회는 2014년 7월 15일 14시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세미나실(박람회장 내 위치)에서 실시하고,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도 사업신청자의 자격이 있음.
  - 라. 사후활용 대상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별재정지원법」 제54조, 제156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17조에 의거, 세제 감면 가능
  - 마.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른다.

###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함께 합니다.

## 하나로대출

한도는 높게  
Up&Down  
금리는 낮게

집 담보도  
상가 담보도  
전세보증금 담보도  
자동차 할부금 대출도  
카드론·현금서비스도

모든 대출을 하나로!  
통합관리 해드리겠습니다

추천 정부보증대출 햇살론 최고 2,000만원

**광주원광신협**  
공동점 227-4474 금호점 383-4474 풍암점 653-4474

## 필드를 연습시키는 쾌적한 연습장!!

- 퍼터, 어프러치 잔디 연습장완비
- 60타석으로 휴게실, 샤워장 완비
- 시간 제한 없이 지속적인 연습 가능

목포시 연산동 614-194  
**목포골프클럽·호남미니골프장**  
T(061)273-0087 F(061)279-5517